

# ‘나’를 위한 삶이 에세이 열풍으로

## ■ 2019 베스트셀러 결산

김영하 ‘여행의 이유’ 베스트셀러 1위  
1인가구 증가 생활방식 변화 에세이 인기  
인문 교양도서들도 독자층 선택 받아  
유튜브 소개 책들 베스트 순위 진입도



올해 베스트셀러 1위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가 뽑혔다.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올해 출판계 베스트셀러 결산에 따르면 김 작가의 ‘여행의 이유’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는 에세이가 강세를 보이면서 말바닥에 ‘나’에 대한 관심이 드러워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행의 이유’는 김영하 작가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느낀 단상을 특유의 정감한 문체와 사유로 풀어낸 에세이다. 책에는 지난 2005년 집필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지만 입국 거부로 당한 일화부터 인간관계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떠난 여행 이야기까지 다양한 일화가 담겨 있다.

또한 여행자의 경험 외에도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 쓰기,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된 ‘사유의 여행’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헤민 스님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도 인기를 끈 에세이다. 두 책 모두 상위권에 랭크되며 올해 에세이 열풍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에세이가 각광을 받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1인 가구 증가로 생활방식, 관점이 나날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과도 맞물린다.

2019년 9월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자료를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58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수 28.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47년에는 37.3%로 가구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SNS로 채울 수 없는 정서적 허기를 에세이에서 찾는다

교보문고는 “소설이 전형적인 타인의 이야기라면 에세이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장르”라며 “그저 작가가 담담하게 풀어놓는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따라가면서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인문 교양서들도 독자층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 세계 1위 경영·인사 컨설팅펌 콘퍼라헤이그롭의 시니어 파트너, 아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도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책은 일상의 고민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고법을 다뤘다.

1990년대 태어나 현재 20대에 이른 젊은이들의 특성은 다른 ‘90년생이 온다’도 화제의 책이었다. 교보문고 6위, 예스24 3위, 인터파크 6위를 기록했다.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교보문고는 올 한해 연간 베스트셀러 키워드를 ‘오나나나’(오랫동안 나를 향한,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삶)로 요약했다.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그만큼 다양하고 개성있게 변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올 한해 베스트셀러 상위권 도서에서도 이러한 개성 중심의 니즈 다양화 흐름이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종합 30위권에 중복으로 선정된 저자만 해도 모두 4명(도서

는 9종)이었지만 올해는 종합 30위에 중복되는 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6명, 5명의 저자 작품이 중복된 것에 비하면 적잖은 변화다.

또한 올해 아동도서도 유일하게 종합 10위권에 든 ‘흔한남매 1’의 도약은 이채롭다. 부모가 골라주는 재미없는 책보다는 내가 선택한 재미있는 책을 읽겠다는 최종 소비자 아이들의 발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예스24는 올해 베스트셀러는 책의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유튜브나 교양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다

고 풀이했다. ‘김미경TV’와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에 각각 소개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사피엔스’ 등도 인기를 끌었다.

또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역사를 돌아보는 도서가 관심을 받았으며 ‘82년생 김지영’에서 비롯된 성평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인터파크는 올해 출판계를 다룬 핫 이슈를 ‘유튜브 크리에이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아이돌셀러’, ‘페미니즘 상담론’으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책들은 베스트셀러 순위

에 오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라이프해커자장’, ‘신박사TV’ 등 책 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부쩍 늘었으며, 유튜브 등 동영상 제작 관련 도서 판매도 늘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읽거나 방송, SNS를 통해 언급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이돌셀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해바라기는 작곡가 그리그의 ‘솔베이지 노래’ 속에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아를 론강의 물결은 제니스 조플린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을 타고 잔잔하게 밀려 든다. 이달 초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제주 ‘빛의 방’을 다녀왔다. 지난해 56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은 클럽트리의 후속작으로, 반 고흐와 그의 예술동지인 폴 고갱의 대표작들을 미디어아트로 되살려낸 현장이다.

‘빛의 방’ 전의 특징은 예술, 음악, 공간이 어우러진 몰입형 미디어아트라는 점이다. 지난해 클럽트리 전이 ‘색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고흐전은 강

(국내에서) 감상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해 ‘2019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잠재력’을 검증받았다. 한국관광의 별은 1년간 한국관광산업을 빛낸 우수자원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 한옥마을, 대구 근대골목·서문시장 등은 수차례 한국관광의 별로 떠오르며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유감스럽게도 광주는 한국관광의 별과는 그리 인연이 없는 편이다. 물론 지난해 처음으로 대안예술시장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지만 올

## 광주관광의 별은 언제쯤 빛날까?

렬한 터치를 생동감있는 영상으로 생생하게 재현했다.

‘빛의 방’이 미디어아트의 발신지로 부활한 건 독특한 장소성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자리한 ‘빛의 방’은 지난 1990년 설치된 후 폐기된 대형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면적이 축구장 절반 크기인 900평에 달한다.

어둡고 습했던 방이 미디어아트의 플랫폼으로 빛을 보게 된 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스케일과 콘텐트 덕분이다. 전시기획사 측은 지난 2012년 민간에 매각된 방을 10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90대의 비디오 프로젝트와 69개의 스피커가 뿜어내는 독보적인 몰입감과 감동으로 차별화된 콘텐트를 탄생시켰다.

그때문일까. ‘빛의 방’은 개관 2년 만에 제주의 관광지형을 바꾸어 놓는 랜드마크로 부상했다. 프랑스 레보드 프로방스의 ‘빛의 채색장’, 파리 ‘빛의 아틀리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전시를

하는 단 1곳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나마 대안예술시장을 한국 관광의 별로 키워낸 전고필 전 대안예술시장 프로젝트 총감독은 회의감을 느낀 끝에 답안에 향토사 전문 책방 ‘이목구심서’를 내며 떠난 상태다. 한때 예술인 100여 명으로 북적거렸던 시장은 지난 2013년 이후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몇몇 작가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 광주는 제주나 부산처럼 빼어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이 부족한 관광의 불모지다. 그림 앞에서 방치된 산업유산을 한국의 대표 콘텐트로 되살려낸 빛의 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광주와 비슷한 ‘조건’인 대구와 전주가 관광의 별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부러운 대목이다. 내년에는 광주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관광의 별이 많이, 그리고 밝게 반짝거렸으면 좋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아라갑문서 경북 자전거길까지 1870km ‘두 바퀴 여행’

### 화순 출신 오동표 씨 ‘배낭 메고 따르릉’ 떠나

“우리나라 강은 아침이 고요하다. 불법처럼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도 있지만 날씨의 변덕도 심하다.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 마음속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원하며 달려왔다. 늦기 전에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을 즐겨라!”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 체험을 책으로 펴낸 이가 있다. 화순 출신 오동표 씨가 펴낸 ‘배낭 메고 따르릉’(신아출판사)은 자전거길 국토 완주를 달성한 기록이다. 오 씨가 달린 길은 아라갑문에서 경북 자전거길까지 총 1870km.

책에는 자전거길 코스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풍경 등이 담겨 있다. 아라 자전거길, 한강 자전거길, 문경새재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금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동해안 종주길 등 하루 코스도 있고 3박 4일 완주해야 할 코스도 있다.



저자의 자전거 여정은 끝이 없다. 별다른 레슨 없이도 누구나 탈 수 있으며 다른 운동에 비해 심폐 기능과 뼈와 근육 등 균형잡힌 몸매를 만들어 준다. 민첩성과 균형감각 그리고 순발력까지 키워준다는 것이다.

책은 국토종주 자전거길 663km, 4대강 자전거길 538km, 그랜드슬렘 자전거길 606km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총 13차 라이딩을 통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록으로 저자가 직접 체험하고 터득한 필수준비물, 간식, 부상 방지법, 자전거 보관 방법, 위험구간 운행요령, 국토 종주 인증제 등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두 바퀴 여행은 돈과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의지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여행인 것이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1회 국창임방울상에 명창 윤충일

상금 600만원...20일 시상

명창 윤충일(사진)이 국창임방울상 수상자로 뽑혔다. 상금 600만원.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제1회 국창임방울상 시상식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회 국창임방울상은 (사)임방울국악진흥회, 목포해상케아블카(주), 광주국악방송이 공동주관한다.

국창임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수상자 중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보급 진흥발전을 위해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이수자로 1995년 제3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975년부터 국립장극단에 30여년 동안 재직하며 수궁가완장발표, 전통창곡, 판소리5바탕, 역사극 등의 주연 및 조연으로 활동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새해맞이 특별문화체험’ 참가자 80명 모집

### 국립남도국악원, 20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0일까지 ‘20 새해맞이 특별문화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국악을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해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30일부터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통 문화체험 행사는 국악배우기(강강술래·대동놀이·풍물가락·민요)와 특별 국악공연, 해님·해돋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남도문화탐방으로 꾸며진다.

8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 三代(삼대)원조 나주공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 황금세차장 (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정대문사거리)  
목공예, 서지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062)523-0408, 010-2631-0408

###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벽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가방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옆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본위  
☎062)222-2424, 011-664-2202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